

경건에 이르는 묵상

- 김창근 목사 -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D.min), OM선교회 서울 지부 대표, 무학 교회 담임목사

이 시대의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포스터는 그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 시대의 비극은 피상성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같이 말하였습니다.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상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의 지적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깊이보다는 표피적인 재미를, 영적 세계보다는 육적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상성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오늘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하며 교회에 주신 많은 은사와 모든 지식에 풍족함을 감사했습니다(고전1:4-7).

고린도교회는 영적 체험이 많고 은사와 지식까지 갖춘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육적이며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3:1-2).

그 증거로 바울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파당이 있고 심지어 음행과 송사가 있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영적 미성숙의 근본적 이유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영적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가 현대판 고린도교회 같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16세기 초의 종교 개혁 직전의 암울했던 시대와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까지 합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교인 하나 하나에 대한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하여 질적 성장이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물량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되어 한국 교회는 영적 미성숙의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특징은 지나친 감정주의와 이에 따른 반지성적 신앙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을 강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신앙적 미성숙성을 극복하려면 영적 훈련을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고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은 지,정,의가 조화된 전인격적 영성이었고

깊은 영성의 묵상이 동반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루 빨리 기독교의 본래적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을 개발하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영적 훈련의 핵심은 말씀 묵상입니다.

다양한 말씀 묵상법 중에서 단순한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네딕트의 묵상법입니다.

그가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수도원은 개인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베네딕트는 매일 7시간의 개인기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간 그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도했으나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간단하면서도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묵상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묵상법은 삼단계입니다.

첫째 한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둘째 그 구절의 뜻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셋째 그 구절의 뜻으로 기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묵상으로 형성된 베네딕트의 영성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런 수도의 생활로 그는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세운 수도회는 전도 뿐 아니라 서구 문명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말씀 묵상은 영적 우물에서 생수를 퍼올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묵상의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면 교회와 온 세상이 정화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